

Chelsea Theodossis

해외 ARTIST 첼시 테오도시스

1991년생 필리핀

2026 / 08 / 21



<Comfortable Statues> 캔버스에 유채 2026

첼시 테오도시스(1991년생, 필리핀)는 필리핀 불라칸에 거주, 활동하는 시각예술가이다. 그녀의 작업은 혼돈과 통제, 애착과 상실, 소외와 소속, 영향력과 자율성 사이의 긴장에서 비롯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개인이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를 탐구한다. 회화, 오브제, 설치를 넘나들며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창작 과정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활용한다. 개인적 아카이브, 가정 내 의식적 행위, 수집 행위에서 영감을 얻는 그녀의 프로젝트는 심리적 장애, 이주, 허위 정보, 그리고 사회적 순응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이번 프리즈 서울에서 선보이는 <Comfortable Statues>는 테오도시스의 정신적 풍경을 여과 없이 외부로 표출한 형태로서 점토 형상을 제시하며, 가공되지 않은 생각, 강박, 스쳐 가는 아이디어, 비합리적 연상, 갑작스러운 몽상, 파편화된 기억, 그리고 틀에 얽매이지 않고 피어나는 상상력을 구체화한다.

* 이 기사는 2026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 더드로잉룸(Frieze B21)에 게재되었습니다.